

‘담양관광사진’ 당선작 발표

‘아름다움 앞에 서다’ 대상 수상 영예 차지 ‘명옥헌’ 그림 같은 전경 담은 김현옥 씨 작



담양군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사진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담양관광 사진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입선 31점 등 총 40점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김현옥 씨의 ‘아름다움 앞에 서다’, 우수상에는 박윤준 씨의 ‘관방제림의 가을 풍경’, 김해웅 씨의 ‘남산리 오

층석탑, 김정현 씨의 ‘서하담에 서’가 선정됐다.

대상작은 명옥헌 배롱나무의 붉은빛과 우거진 숲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잘 담아내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군은 명옥헌, 서하담, 죽림재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 사진이 많이 당선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damyang.go.kr>) 공지사항 또는 고사공고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이번 공모전 입선작을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는 담양관광 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보성군,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호응도 높아



보성군은 정보화 시대 흐름에 맞춰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주에 걸쳐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정보화교육은 보성권과 별교권으로 나눠 과정별로 매일 2시간

씩 5일간 진행하며, 보성권은 정보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보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별교권은 별교컴퓨터학원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엑셀 등 총 4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과정은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려워 전화용도로만 사

용하던 장년층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됐다.

보성군은 스마트폰 사용의 기초에서부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까지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수강생들이 스마트폰 사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강화되고,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청 교육장에 무료와이파이 환경을 구축돼 데이터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습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 중심의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확대시킬 예정이며, 정보 활용 능력과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민 모두가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 연말 이웃돕기 물품 기탁



구례군은 18일 군청 현관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박건용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장, 전창동 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와 연말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물품은 돼지고기 190박스(box/2kg)로 대한한돈협회 구례군 지부는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올해에도 군에 기탁했다.

박건용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장은 “동절기로 추운시절을 보

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주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의 돼지고기를 기탁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전반에 퍼져 이웃과 함께하고 따뜻한 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 받은 돼지고기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19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상수도 요금 조정 나서

2020년 1월부터 5년간 매년 10.4%씩 인상 인상분은 주민들에게 맑은 물 제공 위해 사용

곡성군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10.4%씩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16년 5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재 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42.25%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0원을 들여 물을 생산해서 42원에 파는 셈이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상수도 생산원가 평균 수준인 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원/㎥)도 전남에서 가장 저렴한 464원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상수도를 직영하는 전국 161개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낮은 요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생산원가 대비 80%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해왔다.

곡성군이 464원인 수도요금

평균단가(원/㎥)를 매년 10.4%를 인상할 경우 5년 후에는 761원이 된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약 61%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1,098원인 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1.7%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곡성군의 5년 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전라남도 평균치인 65%에 근접하게 된다.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가정용 15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3,710원에서 4,090원으로 38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5,100원에서 5,620원으로 520원이 오르게 된다. 곡성군은 인상분을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해 주민들에게 더욱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찾아가는 민원행정

화순군, 현장 방문 행정 서비스 실시

화순군은 동면 행정복지센터가 민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밝혔다.

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전담팀 2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낡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서를 현장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25개 마을을 방문해 46건의 민원행정을 접수해 처리했다. 현장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은 한 어르신은 “주민등록증이 낡아 글씨도 잘 안보이고 사진도 흐릿해 사용하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해 주니 고맙다”고 전했다.

정성규 동면장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 특강 개최

나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초청, 자치분권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번 특강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공직자와 지역민이 가져야 할 역할과 마인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번 특별 강연은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자치분권은 단순히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서 주민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라며, “이번 특별 강연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민과 공직자의 역할 정립을 통해 우리 시가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